



표지사진 : 수자타아카데미 13주년을 맞이하여 여학생들이 준비한 율동

JTS 통권 64호 2007년 3·4월

펴낸날 : 2007. 3. 2

펴낸이 : 법 룬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양한석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장성호, 김옥희, 정유석, 김영자
이유나, 배명숙, 권상례, 주점란
윤정희

펴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4 우리는 건물과 행복, 축제를 만드는 사나이!

지금 북한에선

7 평양·회령·청진을 방문하며

필리핀 소식

10 필리핀 평화캠프를 다녀와서

특집기사

11 JTS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단체로 등록되다

국내소식

14 동전 하나하나로 2007년을 맞이해요

19 저금통분양 특별기간 실현 전국현황

후원의 소리

20 서정

따뜻한 이웃

21 두복창고를 맡으면서

활동보고 및 안내

23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필리핀지원사업

국내사업

28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현황

30 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31 아름다운세상 저금통 후원금 현황

34 신규회원(개인, 단체)명단

36 특별후원금 명단

38 북한 내복보내기 기부금 명단

42 CMS 신청안내

우리는 건물과 행복, 축제를 만드는 사나이!

김재령 | 인도이름 ANUP, 인도JTS 공사장 파견근무



동게스와리의 희망과 미래인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 조감도

땡! 땡! 땡!

공사장 출근 시간을 알리는 종이 올리면 인도 JTS 동게스와리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발길이 부산해진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동게스와리에 사는 관계로 공사장 종소리는 동게스와리의 아침을 여는 종소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모인 50여명의 노동자들과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를 짓기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났다.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는 불가촉천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게스와리를 장차 행복하고 풍요로운 마을로 만들어 갈 일꾼이 될 학생들을 위한 곳이다. 학생들은 기숙사에서 숙박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과 동게스와리의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작년 1월 기숙사 기공식을 하고, 3월부터 땅파기가 시작되었다. 한국 같으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2-3일이면 끝마칠 수 있는 땅파기가 무려 한 달이 넘게 걸렸다. 인도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 중에 하나가 비하르주인데, 비하르 안에서도 가장 낙후한 농촌 마을인 동게스와리에서 제대로 된 중장비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장비가 없으니 모든 것을 사람 손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인도의 3월은 한국의 한여름과 같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는 고온에서 노동자들이 곡괭이로 일일이 땅을 파니 노동효율은 고사하고 노동자들의 눈동자가 풀어지기 일쑤다. 땅파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기초공사를 하는데 중장비가 없다보니 콘크리트를 비벼서 세숫대야로 일일이 날라서 거푸집에 넣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은 마치 축제를 치르는 날 같다. 공사장 모든 식구가 하나의 목표(콘크리트 타설)를 가지고 한 장소에서 함께 힘든 노동을 하는데, 서로를 격려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힘든 노동을 잇는다. 이것이 노동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원동력인 것 같다. 나는 주로 공사현장과 일을 점검하고, 노동자에게 매일 일감을 주는 역할인데 콘크리트 타설하는 날은 잠깐이라도 삼을 들고 노동자들과 함께 일을 한다. 내가 삼을 들고 현장으로 가면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좋아한다. 그런 그들을 보면 나와 노동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생각이 가슴을 적신다.

수자타아카데미의 기숙사는 한국의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서 2억원을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으로 시작하게 된 공사이다. 물론 기숙사 하나만 짓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에게 가방과 교복도 나눠주고, 늘어나는 학생들을 위하여 교실 네 칸 증축과 분교 네 칸 증축, 실습장도 있다.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렇다보니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욱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일상화된 등계스왑리. 이곳에서의 교육은 가난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핵심이다.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러니 한국의 현대·기아 자동차그룹이 후원하는 2억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못가서 문맹으로 한 평생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의 가난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가족과 마을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게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땅이 기름지면 씨앗이 잘 자라듯이 이곳의 아이들도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공사는 지

현재 2층 벽체 공사가 한창인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 전경

금까지 한 일보다 앞으로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 중장비가 없으니 모든 것을 우리 노동자들의 손으로 기숙사 건물을 지어야 한다. 3월부터 한여름이 시작되는 인도는 4월부터 출구 없는 한증막과 같은 더위가 몇 개월 지속된다. 그러면 우리 노동자들이 흘린 땀은 비가 되어서 작은 연못이 될 것이다. 이 노동자들이 흘린 땀은 작게는 그들 가족이 먹고 사는 생계이고, 크게는 등게스와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드는 터전이다.

이곳 등게스와리에서는 공사장에서 일하는 육체적 노동을 천시하는 문화가 있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노동자들도 다른 일거리가 없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기숙사와 교실, 분교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각 개인이 행복하게 일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 공사장 노동자들에게

“당신들은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등게스와리의 희망과 미래를 위해서 숭고한 선택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 한 적이 있다. 나와 우리 노동자들은 올해 열심히 건물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이 흘린 땀이 어떻게 등게스와리의 희망과 미래와 연결되었는지 찾을 것이다. 이것을 찾는 과정 자체가 행복일 것이다. 우리는 힘든 노동 속에서 행복을 만들 것이다.

나는 불교신자이지만 수행이 많이 부족해서 공사가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내 마음부터 살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잘못을 큰소리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자신이 불완전하고, 우리 노동자들도 불완전하지만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처럼 힘든 노동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있기에 늘 희망이 있다.

우리는 건물과 행복, 축제를 만드는 사나이들이다. **JTS**



힘든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환하게 웃는 김재령(가운데)과 공사장 식구들



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벽돌을 쌓는 노동자

평양 · 회령 · 청진을 방문하며

박지나 | JTS 해외사업본부장



지원물품을 확인하고 배분하고 있는 모습

• 평양방문기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초청으로 1월24(수)일부터 26일(금)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을 방문했다. 1월24일 아침 10시45분 인천발 심양행 비행기로 심양공항에 도착 해서 점심을 먹고 심양행-평양발 3시 비행기에 올랐다. 평양에서는 새로운 사업 논의차 JTS를 초청했고 극진한 대접을 해 주었다. JTS가 비록 많은 지원을 하지는 못 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복측의 마음을 극진한 대접으로 표현해 준 것이리라.

염려되고 마음이 쓰였던 수해지역 소식부터 물어보았다. 현재 수해지역은 활발하게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꺼번에 많은 살림집을 건축하다보니 건축자재가 부족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주민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자재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식량과 겨울옷, 모포가 많이 필요해서 돌아가면 밀가루와 내복 등을 수해지역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청진 · 회령 방문기

연길에서 하루 보내고 1월29일(월)부터 1월31(수)일까지 2박3일 동안 청진 · 회령을 방문했다. 12월에 지원했던 물품을 창고에 모아놓고 내가 갈 때까지 분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방문하면 있는 자리에서 배분한다고 기다렸다고 한다. 5개 고아원(육아원, 애육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성학교, 농아원)과 양로원 원장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박스를 하나하나 열어서 라벨링과 상자 내용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일일이 카운팅했다.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 것이 하나라도 빠질세라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수량을 체크하고 나누는 과정을 보면서 감동이 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오히려 우리 쪽 실수가 있어서 민망했다. 두복창고에서 박스작업과 라벨작업을 했는데 라벨과 속 내용물이 다른 것도 있었고, 상자 밖 수량표기와 실제 숫자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애육원에서 가져가는 박스에 '길주초등학교' 이라고 라벨링되어 있어서 큰소리로 "아니, 그거 길주초등학교인데 왜 애육원에서 가져가요?"하고 소리쳤다. 그런데 막상 보니 내용물이 애육원 것이었다! 정확한 분배를 요청하고 모니터링 하러 갔던 것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하면 북측에서 이렇게 세밀하고 철저하게 배분을 한다는 것을 현장 확인한 것이 큰 소득이라고 할



양로원과 고아원에 지원한 모자를 쓰고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들



양로원 방문길에 추워서 손을 뒤집어 쓰고
중종걸음 중인 박지나 본부장



회령 양로원에서, 20살 차이가 나는 노부와와 함께

수 있겠다.

각 고아원 원장들은 아이들에게 줘야 할 물품들을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박웃음을 터트리며 아주 즐거워하면서 물품을 챙겼다.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물품을 분배하고 각 트럭에 실어놓고 근처 식당으로 함께 가서 냉면을 먹었다. 고기와 달걀이 듬뿍 들어간 냉면. 아이들에게 줄 물건들을 생각하며 행복해하는 분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식사. 행복했다.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에 또다시 고맙고 감동되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수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TTS]

필리핀 평화캠프를 다녀와서

권혁 | 필리핀 평화캠프 참가자

14박 15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주일의 시간이 마지막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 갈등, 고민으로 시작했던 평화캠프. 택하는 만큼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기에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어느새 나는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르고 있었다. 비행기 안에서, 만팔라나이에 가는 차안에서 과연 어떤 모습에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까? 빨리가서 그들을 도와 주자' 라는 생각을 하며 점점 목적지에 가까워 올수록 가슴이 벅찼다. 창밖으로 보이는 울창한 숲, 맑고 깨끗한 하늘과 높은 구름은 2년 동안 군대라는 울타리에 있었던 나에게 자유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몇 시간 달려 도착한 송코라는 마을에서 우리는 현지 청년들과 합류했고 1시간 가량을 더 달려서 우리는 목적지인 만팔라나이에 도착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밝은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마을은 차에서 내려 1시간 가량 걸어들어 가야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짐을 들어 주어서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부터 나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작업을 할 때도 밥을 할 때도 설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물이 필요할 때도 나는 그들의 도움 없이 그곳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짜증내고 살이 탈까 조심하고 갑자기 내리는 비에 우왕좌왕할 때도 그들은 우리보다 열심히 일하며 우리의 편의를 생각해 주었다. 그렇게 맑은 그들에게 '우리가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는 도움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온 것 같다. 그것들을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그것들이 내 가슴 속에서 영원할 것 같다. 다시 돌아가는 일상에서 힘들 때 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나에게 2주는 인생의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함께한 여러 색깔의 친구들은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양한 모습들로 내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이였다. 그들은 마을 언덕에서 본 무지개처럼 각각 다른 색으로 함께 어울려 빛나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난 건 이번 해외봉사활동에서 얻은 또 다른 보물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길..... **JTS**



JTS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단체로 등록

양한석 | JTS 국제부



유엔등록이 승인된 다음날,
한국유엔대사관에서 UN NGO부 한국 대표와 함께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최경숙 JTS 이사)

지난 1월 24일 JTS는 최경숙 이사와 민덕홍대표(미국JTS)로부터 JTS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단체로 승인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다. 최경숙 이사는 임선희님과 함께 22일부터 시작된 심사회의에 JTS를 대표하여 참석, 최종 심사 절차 통과를 무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와 더불어 미국JTS의 민덕홍 대표, 또 한국JTS에서 지원을 하며 JTS의 활동을 유엔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3일

동안 진행된 심사기간동안 참여한 여러 단체와 심사위원들은 JTS의 활동 내용에 감명을 받고 JTS가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시민단체

유엔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 ECOSOC)는 유엔을 구성하고 있는 6개 기관 중의 하나로 54개 회원국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엔의 경제와 사회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시민단체(NGO)와의 관계도 담당하고 있다. 유엔은 1996년에 통과된 결의안 1996/31을 통하여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강화시키기로 결의하였고 이때부터 시민단체에게 협의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포괄협의 지위, 특별협의 지위, 그리고 기타(Roster) 등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위별로 유엔과의 협력 관계가 다르다.

특별협의 지위 단체는 유엔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며 경제사회이사회회의 공개모임에 참관할 수 있고 경제사회이사회회의 의제를 통지 받으며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단체들은 시민단체들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위원회 또는 유엔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에게 특정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를 부탁할 수도 있다.

특별협의 지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회의 업무에 부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단체들로, 이 단체들은 경제사회이사회회의 산하 기관에서의 발언권과 의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세 번째, 기타(Roster)는 경제사회이사회회의 관심분야와는 다르나 유용한 공헌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단체들에게 부여된다.

JTS와 유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지위단체로 등록이 되었다함은 JTS가 국제기구의 수준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유엔 등록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노력해 온 결과이다. 수고하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JTS는 앞으로 더욱 알차고 활발한 국제 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JTS**

*아래는 JIS가 UN경사리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뛰신 최경숙이사님의 글입니다.

국제구호단체 JIS 활동이 유엔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그간 범윤 이사장님, 전현직 활동가들,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온 박지나 해외본부장님의 노고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많은 회원들의 지속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06년도 말 유엔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심의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무슨 질문을 받게될 지 아무 사전지식이 없는 채로 그냥 갔습니다. “그냥 한다”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간 중흥무진 활약한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과 미국 JIS 사무국장인 민덕홍 박사가 출석해야 마땅한데, 박지나 본부장은 인도 출장 중이고, 민덕홍 사무국장은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어 부득불, 나와 뉴욕 실무자 임선희씨가 출석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된 본회의에 참석하여

첫날은 미리 신분이 확인된 출입증을 만들어 목에 걸고, 10시까지 컨퍼런스 룸에 들어갑니다. 동시통역 헤드폰에서 나오는 영어, 불어, 아랍어 등이 나오는 헤드폰을 귀에 대고, 영어가 나오는 채널에 맞추고 듣고 있었으나, 처음엔 좀 놓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각 대륙과 지리적으로 끌고루 분포된 경제사회이사국 대표들은 우리들이 잘 아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하여 인디아, 파키스탄, 쿠바, 콜롬비아 등 19개국 대표들로 되어 있으며 이분들에게만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세계 각국에서 온 NGO 대표들로 해당사항에 묻는 말에만 대답하게 되었고, 대답을 한 후에도 나중에 문서로 확인되고 더 이상 의문이 없어야 통과되었습니다. 어느 한 대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토의했습니다. 그래도 끝나지 않으면, 다음 회기까지 미뤄지거나 너무 오래 몇 년 간 미뤄진 건은 말소되기도 한답니다.

JIS에 대한선 재정과 활동지역, 활동지역의 다른 NGO와 그 지역 정부와의 연계활동 여부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쿠바, 중국, 콜롬비아로부터 질문을 받았고, 그 답변은 단상에 불러나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이 미비한 것은 문서와 e-mail로 보충 답변하여 각 대표들이 크게 만족했습니다. 낮과 밤의 시차가 있는 한국, 워싱턴의 민덕홍 사무국장 과 민첩하게 대화가 이루어져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난관, 중국 대표의 의제기로 JIS 관련 논의를 15분 남겨 놓았을 때 한국 대표부의 일등 서기관이 우리를 찾아와 중국 대표와 의견을 나눈 것이 또 하나의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고 이의없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는 5월 중에 정식 등록문서를 전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 산하의 경제 사회이사회 NGO 협의체로써 활동 성공사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며 UN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동을 모색할 수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리라 믿습니다.



2007년 2월 13일
미국 JIS 상임이사 최경숙

동전 하나하나로 2007년을 맞이해요

열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만 보태도 한 사람이 먹을 밥이 된다는 심시일반의 정신으로 저금통을 통한 동전모으기가 시작되었다. 동전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취지를 살려 150원이면 한끼를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전하며, 2006년 11월 12일부터 2007년 2월 8일까지 100일간 특별기간을 두어 진행해 본 사업이다. 동전 한 개가 저금통으로 들어가는 순간 한끼의 식량이 되어 어린이들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그렸다. 벌써 마감기간이 되었고, 많은 분들의 따뜻한 정성이 묵직한 동전과 함께 함박웃음을 전하고 있다.



서 울 - 오금실

오복이를 식탁위에 올려 놓았다. 밥을 먹는데 오복이가 제3세계의 굶는 어린이로 보여 도저히 그냥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밥 숟가락을 놓고 동전을 찾아 돼지 저금통 입에 넣어 준 후에야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밥상이 너무 풍요롭다는 것도 느꼈다. 며칠 뒤에 모임이 있었다. 오복이를 가지고 가려했다. 대단히 번거로웠다. 되는 만큼만 하자



는 마음으로 70여개의 오복이와 나의 연락처를 가지고 갔다. 틈새를 이용해 분양할 생각이었다. 다행히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가져간 것 모두를 소화시켰다. 그 자리에서 바로 두 마리의 채워진 저금통을 받았고 삼십만원 정도의 지폐도 들어왔다.

만남이 있을 때마다 틈틈이 모금을 했다. 내가 머리 숙이고 다가가 이 일에 관해 전달만 잘하면 될 것 같았다. 150원으로 한끼 영양식을 줄 수 있다니 이걸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가!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싶어 그렇게 했다. 그러나 분양한 저금통을 회수하는 일이 어려웠다. 편지를 많이 보냈다. 헤아려 보니 내가 목표했던 만큼은 달성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예상치 않은 것을 얻었다. 세상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았고, 모금하는 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아를 도우려 했던 것이 도리어 내게 훨씬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 주 - 강재연

오복이 분양을 받을 땐 누구누구에게 분양을 해야지 하는 그림을 그렸다.

친구를 만나고 한끼 150원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는 많은 어린이를 위하여 오복이를 잘 키워달라는 부탁을 했더니 또 “숙제구나” 하는 반응을 보이며 별로 반갑지 않아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해 주시는 분도 계셔서 힘을 얻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한 생각도 순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 정도의 불편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수저 나누어 한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매일 오복이 배가 불룩하게 잘 먹이라고 부탁 아닌 애원을 하며 분양을 했다. 분양 후 종종 안부도 묻고 “오복이도 잘 자라고 있지?”라는 말로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오복이가 모이는 시간이 되어 모여라 했더니 배가 불룩해 뒤통뒤통 걸어오는 일복이, 적당히 먹어 빠르게 달려오는 이복이, 주인 잘못 만나 배 끓어 힘없이 주저앉은 삼복이, 동전이 없어 못 넣었다고 세종대왕님을 대신 보낸 사복이, 아유 감사해라 일복아 이복아 우리 아가들 잘 키워줘서 고맙다.

지난 번 모금활동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친구나 친지들에게 나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도 못해주나?’ 하고 서운해 하며 나 자신이 괴로웠다. 좋은 일 하면서 괴롭다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스님 법문도 생각나면서 이번에는 욕심을 내지 않았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번 오복이를 분양 하고 회수하는 과정에서 협조해주지 않은 친구나 친지들도 있지만 웬지 이번에는 그들을 전혀 밉다거나 섭섭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그들을 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 일 자체가 즐겁기도 했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

올 산 - 이경숙

처음에는 거창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끝까지 잘되지는 않았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JTS구호사업에 대한 영상물을 보여주었고 오복이 진단을 나누어 주었다. 수거율은 50%정도가 되었다. 아이들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이름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아이들도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명단이 소식지에 올라가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었다. 좀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진행했으면 더욱 큰 성과를 올렸을 것이다.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기꺼이 해준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고맙다.

동 래 - 김남순

지난 몇 년동안 JTS모금 활동에 참여해준 학급 아이들이 참 고맙고 기특하다. 이번 오복이 과제를 받았을 때도 32명의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서 가벼운 마음이었다. 평소 JTS소식을 돌리라며 읽게 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3세계 아이들의 영상물도 보여주며 학급에서 '사랑 저금통'이라 써붙인 상자에 꾸준히 모금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데, 방학 얼마 전 오복이저금통에다 일일이 이름을 써서 나눠줬더니 두 아이는 받으려 나오지 않는거였다. 순간 '저녀석들이 또...' 하는 괘씸한 마음이 올라왔으나 곧 내려놓으며 '복 받을 기회를 놓치다니 안타깝구나. 꼭 채우지 않아도 되니 가져가볼래?' 하고 거의 떠맡기다시피 나눠주는 욕심을 내기도 했다. 그런데 개학 후 들고온 저금통은 예상보다 부실한 수준이었다. 무겁게 채운 건 몇 개 되지 않고 반도 못 채운게 많아 분별심이 일어났으나 그래도 기특했다. 그래서 작은 선물로라도 칭찬해줘야겠다 싶어 저금통을 받으면서 연필을 한 자루씩 나눠줬더니 모두들 좋아하여 나도 흐뭇~*. 이런 활동이, 액수가 많은 적든 나눔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내어볼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어 평생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지리라 기대해본다. 이런 아이들이 세상의 평화를 앞당기리라!

해운대 - 김금자

동백섬을 걸어서 도는 아침운동회원들과 친목계원들에게도 다섯가지 복을 전하는 저금통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안한다고 하면서도 몇사람이 동참해 주었다. 진시장에서 장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JTS에 옷을 지원해 준 사람들이 동참해 주었고, 요가하는 회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분양을 할 때는 재미가 있었다. 딸 친구들에게도 3명 분양을 했는데 아직 수거하지는 못했다. "백일에 15,000원이다"라고 했는데 5,000원부터 29,000원까지 들어온 금액은 차이가 많다. 5,000원밖에 후원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섭섭해하는 분별도 일어났는데, '그 돈이라면 몇 명을 먹일 수 있는데'라고 생각으로 돌리니 고마웠다. 동전액수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저금통을 왜 안주었느냐고 하면서 지금 달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번 일로 JTS를 알게 되었고 좋은 일을 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 구 - 지명자

어느 날 한 반에서 우연찮게 꺼낸 “지구인구 60억 중 1/5은 굶어서 죽어가고 있고, 또 1/5은 배불러서 음식을 버린다”로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그럼, 누가 도와주어야 되겠노?”라고 물음이 던져졌다. 근데, 그 정신없이 말썽만 피우던 아이들이 “우리가!”라고 자연스럽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수업 후 “선생님.. 일복이 신청하고 싶은데요.”, “이복이 키울라 키는데요.”라며 한 두 명씩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닌가! 몇 명 되진 않았지만 참으로 기뻐다. 그 다음 시간엔 법당에서 빌려온 ‘JTS홍보영상’을 보여주었는데 신청자가 더 늘었다. 신뢰감이 생긴 모양이었다. 이렇게 하여 내가 맡고 있는 1학년 다섯 반을 기말고사 후 2시간을 내어 설명과 영상을 보여주며 오복이 분양을 소개하였다. 평소 모범생이던 녀석도, 숙제 안 해 오던 녀석도, 주의산만 하던 녀석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고, 형편이 넉넉한 녀석과 함께 어려운 녀석도 남을 생각하는 여유로움으로 다가왔다. 한 여학생은 집에 있는 동전을 모두 넣었다며 며칠 후 저금통을 가득 채워 가져왔는데 저금통에는 온통 ‘일복아.. 많이 먹어라’, ‘I♡일복이’, ‘JTS 핫팅’ 등의 글귀가 적혀있는 것이었다. 바로 오복이 튜닝이었다. 그 애들을 아는 나는 실로 만족하며 행복하다. 이제 그 말썽꾸러기 애들은 행복한 나와 겉돌지 않는다. 제3세계 어린이들과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애들과 나는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한 마음이기 때문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길목에서 그들에게 잘 쓰이는 교사가 되리라 확인해 본다. **JTS**



저금통분양 특별기간 실천 전국현황

지역명	개인분양		지역분양	
	개수	금액	분양한곳	분양개수
서울정토회	1,388	30,147,710	98	228
동래정토회	559	7,636,820	50	150
해운대정토회	435	7,236,470	145	145
대구정토회	466	7,888,090	6	316
대전정토회	388	6,673,050	13	13
마산정토회	188	3,000,640	71	289
청주정토회	238	4,805,240	0	0
울산정토회	615	6,994,263	55	67
광주정토회	169	1,596,920	0	0
제천법회	95	1,340,560	0	0
정읍법회	13	194,080	0	0
김천법회	40	570,620	0	0
제주법회	31	687,410	0	0
경주법회	71	1,661,140	0	0
통영법회	187	1,613,670	0	0
대학생정토회	11	140,470	6	6
실무자 및 상근활동가	68	1,433,680	0	0
총	4,962	83,620,833	444	1214

전국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의 저금통을 분양하였고, 특히 그 중에서 서울 오금실님은 총 122개를 수거하여 총 2,202,980원을 울산 이경숙님은 총 156개를 수거하여 총 717,600원을, 통영 최광수님은 총 103개를 수거하여 총 795,210원을 저금통을 통해 지원하였다. 동참하신 전국의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더 감사함을 전한다.



서정

서석곤 | 서울정토회

올해 태어난지 한 달 된 우리 아기 이름이에요. 이름이 참 서정적이죠? ^^
 성은 서(徐) 이름은 정. 외자로 “정” 입니다. 어떤 이는 ‘서정’이란 이름을 보고는 서방정
 토의 줄임말이라고 하기도하고 어떤 이는 그거 배우 이름 아니냐고 하기도 하네요. 성은
 아빠가 서씨인지라 자동으로 따라 붙은 거고요. 운명이지요. 이름은 욕심 많은 아빠가 지
 었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아내와 설왕설래하다가 정토, 서정토 라는 이름을 내
 었다가 아내에게 퇴짜를 맞았답니다. 아기에게 종교를 강요한다나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
 이라 얼른 접었습니다. ‘그럼 어쩐다? 다시 이런 궁리 저런 궁리를 하다가 뒤에 붙은 토 자
 를 잘라버렸더니 ‘음! 좋군’ 하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고 단번에 아내의 동의까지 얻어냈습
 니다. 근데 왜 욕심이 많다고 했을까요? 사연인즉 아이의 이름을 한글로 남겨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이란 이름의 한자를 찾았더니 좋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 正 - 바르고
- 晶 - 맑고
- 情 - 따뜻한 정
- 淨 - 깨끗하고
- 靜 - 고요하고

바르고 맑고 따뜻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평정을 잃지 말고 고요하게 살아라. 그래서
 그냥 그 뜻을 다 가지라고 한글로 남겨두기로 했지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어때요? 욕
 심이 좀 많긴 하죠? 그러면 세상에 빛을 본지 한 달도 안된 지금까지 정이는 대외적으로 무
 었을까요? 음...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했지요. 2007년 1월 17일 세상에 온 한
 생명. 서정. 그리고 다음에는? 탄생기념으로 JTS 북한어린이 돕기 후원자목록에 이름을 올
 렸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아기랑 모두 모두 JTS 가족이 되었지요. 그리고 또? 지금 적어도
 수 천 명의 손에는 들어감직한 JTS 후원지에 얼굴과 이름을 올리지 않나요? 흠 태어난지
 한 달 만에 이 많은 일을 한 것을 보면 틀림없이 나중에 인류의 행복을 위해 뭔가 한 가닥할
 거라는 기대를 마구마구 한답니다. 좀 푸순 같죠? 그렇게 흥분셔도 좋답니다. 속으로 부러
 우시면 나눔에 동참을 하시면 더 좋지요. ^^

이렇게 조금씩 나누고 함께하는 인연을 만들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깨끗한 땅 정토에 살
 고 있지 않을까요? [TTS]

◆ 참고-서석곤씨는 2001년 11월부터 JTS의 회원이 되셨고, 아내 임부영, 아들 서정과 함께 가족단
 위로 후원해주시는 모범 가정입니다. 아이에게 이보다 더 큰 교육은 없겠지요?

두북창고를 맡으면서

김기왕 | 울산정토회 자원활동가



정토회에 들어온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총무님이 두북창고 관리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의하여 얼떨결에 맡기는 하였으나 참 난감하였다. 장비와 공구도 부족한 상태였고, '창고는 어디 소속이고, 어떻게 분류하는지, 봉사자는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등등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며 분별심이 일어났다. '내가 왜 이런 골치 아픈 일을 맡아서 스트레스를 받나? 밖에서 문제점을 찾으니 하기 싫은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일하러 갈 때마다 짜증이 나고 억지로 떠밀려서 하기 일수였다. 본격적인 마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깨달음의 장을 갔다 온 후였다. '그래, 이왕 하는 일 확실하게 잘 해보자. 그리고 잘 쓰이는 사람이 되자.' 한 생각 바꾸니 창고의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였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도 제대로 보였다.

북한에 물품을 보내고,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물품이 도착될 때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느껴져 내 자신이 무척 작아보였다. 그리고 실무자들의 일력

하는 모습에 나란 존재가 더욱더 작게 느껴졌다. 그런데 나는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봉사일에 이렇게 분별심을 내다니... 참회하였다.

울산지역 여러분들과 창고봉사 후 나누기와 단합대회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창고 정리 때마다 새벽이든 아침이든 부탁하면 항상 '예, 알겠습니다.' 하는 김동철님과 총무님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항상 남들이 나한테 맞추어주길 바라고, 이 핑계 저 핑계 생색내려는 마음, 참회합니다.

2007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을 내서 두북 JTS창고를 나의 일터 중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전국에서 보내온 물품을 정성스럽게 정리정돈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연구하는 자세로 전체의 한 부분이 되어 사회에 유익하고 잘 쓰이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이렇게 올해는 원을 세웠습니다.

영남권에 계신 분들!

두북 노인봉사도 중요하지만, 창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봉사 부탁드립니다. **JTS**



인도지원사업

● 뽀락보디홀 준공식 및 수자타아카데미 개교 13주년 기념식



1월 13일 수자타아카데미에서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뽀락보디홀 준공식 및 개교 13주년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보드카야 각국 절의 주요한 스님들과 마가드 구역의 커미셔너(우리나라 '도지사'에 해당됨), 바라차피아 지역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뽀락보디홀 준공식 테이프 컷팅으로 시작한 이날 행사는 유치원의 유치반 학생들,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과 마을 리더, 유치원 교사, 어머니회 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학생들의 노래, 춤, 연극 등 문화 공연과 시상식, 한국에서 보내주신 물품 전달식 행사로 진행되었다. 한편 뽀락보디홀의 뽀락보디는 전정각이라는 의미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전에 고행하신 이 곳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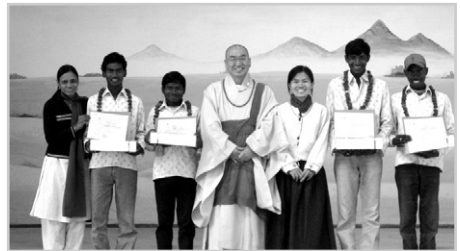
● 아마르푸르 유치원 개원식



지난 1월 12일 마을사람들과 각 마을 유치원 교사 및 리더들, 인도JTS 스태프, 한국인 성지순례객 등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마르푸르 유치원 개원식이 있었다. 유치원은 인도JTS에서 기술자와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사람들은 땅을 기부, 마을 전체가

취재단(노력봉사)을 하기로 하여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되었다. 규모는 40평으로 교실 2칸, 사무실 1칸과 복도로 이루어진 벽돌 건물이다. 특히 아이에서부터 학부모인 마을 사람들 전체가 함께 노력봉사를 하였기에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유치원 부지를 기부한 세분, 취재단을 가장 열심히 하신 세분, 봉사정신으로 건축에 참여한 기술자 세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전달했다. 그리고 유치원생들의 귀여운 율동과 마을 사람들의 신나는 문화공연으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 청소년 노동학교 졸업식 및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 마을 잔치



청소년 노동학교 졸업식이 1월 26일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 마을 잔치와 함께 마을 주민, 학교 상급반 학생들, 청소년 노동학교, 공사장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총 4명의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었으며 졸업 선물로 개인 연장 세트와 졸업 축하금이 수여되었다. 이날 청소년 노동학교 후배들과 공사장에서는 축하 공연을 준비해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졸업한 학생들은 공사파트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두르가푸르, 자그디스푸르는 수자타 아카데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마을들로 학교와 가장 근접해 있는 마을들이다. 법륜 스님께

서 두 마을 20세 이상 어른들을 초청한 식사점대와 마을 사람들의 흥겨운 공연으로 마을 잔치가 이루어졌다. 이 날 총 580여명의 마을 사람들이 참석하였으며, 이 날 행사 이후에는 산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 200여명에게도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였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과 장애인들로 가장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 **법륜 스님 현지 사업장 방문 및 법회 진행**

법륜 스님께서는 인도에 1월 23일부터 4일간 방문하셨다. 방문하시어 인도 JTS 사업을 둘러보셨으며, 각 파트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하고 있는 청소년 노동 학교 학생들, 상급반 학생들, 마을 리더, 스텝과 교사 등 인도인들과 만남의 자리에서 어려운 점을 들으시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셨다. 이후에는 이들 모두가 참여하여 법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인도인들이 동계스와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주역이 되자고 다짐하는 뜨거운 자리가 되었다.

● **수자타아카데미 신입생 입학 및 새학기 시작**

2007년도 수자타 아카데미는 신입생은 198명이다. 이번 신입생들의 하리잔 비율은 56%이며, 지난해에 비해 하리잔 비율이 4%가 증가되었다. 2월 12일에는 수자타 아카데미 본교와 까나홀 본교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활발히 수업과 학내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다.

● **수자타아카데미 3층 증축 완공**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현대기아자동차에서 후원하여 진행된 수자타아카데미 3층 공사가 이번 12월 완공되었다. 총 교실 4칸이 증축된 이번 공사는 새 학기 전에 공사가 마쳐서 전교생이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서 모두 기뻐하였다.

● **인도JTS, 인도정토회 총회 및 이사회 개최**

1월 13일 인도JTS와 인도정토회 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 활동보고와 재정보고를 공유하였으며 새로운 이사진을 선출하는 자리를 가졌다. 1월 25일에는 인도정토회 이사회가 보드갸야에서 개최되었다.

● **전교생에 가방 지급**

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한 책가방 930개도 신학기 전에 전교생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현대·기아자동차그룹과의 후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숙사 신축도 2층 벽체 작업을 진행하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직영마을 유치원 예방접종**

지바카 병원 모자보건 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직영마을 8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다. 동계스와리 마을은 물 부족이 심각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여 각종 질병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나 정부로부터의 예방접종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바카 병원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해 오다가 이어져 가장 열악한 직영마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32차례에 걸쳐서 644명에게 DPT, 홍역, 간염 예방접종을 진행하였다.

● **대학생 평화캠프, 청소년 워크캠프 진행**

제 6차 대학생 선재수련이 지난 12월 31일부터 21박 22일로 6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파손된 마을 도로 보수공사, 마을 쉼터

만들기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마을 인구 조사와 1월 행사 준비에도 함께하여 많은 도움을 제공하였다. 제 5차 청소년 워크캠프는 1월 21일부터 30여명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유치원 벽화그리기, 마을 사위실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수자타아카데미 상급생 학생들과 친구집 방문,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북한지원사업

● 평양 방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의 초청으로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이 지난 1월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동안 평양을 다녀왔다. 북측은 2007년도 JTS 북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논의도 하고, 지난 해 11월 북한 성홍열 치료제 페니실린 지원에 대해 JTS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 청진 · 회령 방문



지난 1월29일부터 2월1일까지 2박3일동안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은 청진, 회령지역을 다녀왔다. 지난 해 12월 지원했던 물품 모니터링도 하고 2007년도 사업도 논의하기 위한 정기적인 방문일정이었다. 마

침 청진에 도착하니 12월에 지원했던 물품을 배분하지 않고 있었다. 박지나 본부장이 보는 앞에서 5개 고아원과 양로원이 각각 자신들 앞으로 보내진 물품상자들을 챙겨서 준비해 온 트럭에 싣고 떠났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박웃음을 지으며 지원물품을 소중하게 받아간 모습들을 떠올리면 후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우러난다.

● 수해지역 신양군에 밀가루와 내복 지원



2월15일 목요일, 인천항에서 평안남도 신양군(수해지역)에 밀가루 50톤과 내복 10,000벌(20피트 컨테이너 3개와 4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싣고 남포항을 향해 출항했다. 지난 1월 평양을 다녀온 박지나 해외사업 본부장의 수요조사 후 지원이 이루어졌다. 서울 JTS회원들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직식을 진행, 수해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양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보냈다.

필리핀 지원사업

● 맘팔라나이, 산 마테오 학교 완공

1월 JTS에서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맘팔라나이의 학교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월에는 산 마테오의 학교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맘팔라나이는 마을 다투(주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마을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3개월 만에 교실 2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006년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산 마테오는 이후 우기로 마을 진입로가 엉망이 되어 자재운송이 어렵게 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마을주민들이 마을 진입로의 용덩이를

매우고 평탄작업을 통하여 길을 정비하여 자재를 운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 지역역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교실 3칸 공사를 마무리하였다. 2월 필리핀 JTS 책임자인 이원주 회장님을 비롯하여 현지 활동가 및 마을주민들이 참여하여 준공식을 진행하였다.

● 농업지원 및 재봉틀 지원



2006년 12월 JTS에서는 원주민 마을에 농업지원을 진행하였다. 5개 마을에는 건조장 건축 지원을 하여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수확한 농작물을 건조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용 소 10마리와 쟁기를 지원하여 마을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7개 마을에 재봉틀 12대와 전통 물레 2대를 지원하여 마을 주민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복 및 전통의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봉제 기술 교육을 진행하여 재봉틀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 제5차 필리핀 평화캠프



2007년 1월 9일부터 24일까지 JTS 사업장인 맘팔라나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의 대학생 19명이 참가하여 필리핀 세비아 대학교 학생, 맘팔라나 및 인근의 전통마을인 송코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 진입로 공사 및 마을축제, 평화세미나 등을 진행하였다.

국내사업

● 동래정토회 수자타나눔 물품/먹거리 장터



부산동래정토회에서 1월31일 수요법회 후 수자타 나눔장터를 열었다. 흥겨운 장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정도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노래에 맞추어 앙증맞은 율동을 했다. 부침개, 새알미역국, 호박죽, 식혜, 수정과, 과일등 다양한 먹거리 장터도 열었다. 필요한 물건이 있는지 장터에 물품들을 둘러보고 있는 중이다. 물품판매 174,000원, 먹거리장터 55,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총 수익금 229,000원으로 인도수자타 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현장방문



정토회의 인도성지순례시 JTS후원자들이 수자타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직접 만나는 행사가 있었다. 이때 한 해 동안 수자타를 위해 물품을 후원해 주신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물품 전달식은 1월 13일 개교기념행사 때 같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같이 있었던 성지순례팀에서 두 사람의 소감을 들어보았다.
권현진 - "수자타 아카데미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구나~, 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

리가 모금도하고 후원을 하면 이렇게 쓰여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박용숙 - “교복, 가방 전달하는 것을 보니 좋고,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맑았다.”

● (주)다다에서 문구류(노트)지원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에 위치한 주식회사 다다에서 노트를 120권씩 160박스를 두 차례 지원해 주셨다. 총 9,984,000원 상당의 문구류 지원과 운송비까지 지원하여 울산 두복창고에 전달해 주신 (주)다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직원들께 감사 말씀을 전한다.

● 서울정토회 상설 장터 열다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는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수자타나눔장터를 상설화하여, 사무실 한켠에 작은 장터를 마련하였다. 정토회 활동가들이 주고객이고, 물건을 기증하러 왔다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다. 1~2월 판매액은 263,750원이다. 계절에 맞는 다양한 옷, 가방, 신발, 약세사리, 책 등 여러 종류의 물건이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린다.

● 대구정토회 두복봉사활동 다녀오다



매월 둘째 금요일 대구정토회에서는 두복에 봉사 활동을 다녀온다. 할머니댁 청소도 하고, 물류창고 정리, 미용봉사까지 하고 나면 하루가 다간다. 이렇게 시작한 봉사가 어느덧 대구정토회의 일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 인도JTS 활동 보고회



2월 9일 금요일 3시부터 5시까지 인도JTS 장영주 국장의 인도사업보고 및 오용태님과 지장법사님의 6개월간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2006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더불어 이후 사업방향에 대해서도 학교, 병원, 마을개별로 분류해서 설명해 주셨다. 병원에서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치료를 한 오용태님은 사진을 보면서 사례중심으로 설명하셨다. 지장법사님은 지하수공공사, 펌프공사등을 하였고, 아이들도 힘모아 공사에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인도 사업이 잘되기를 기원하며 기념촬영으로 마무리하였다. [TTS]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경영현황

2007년 1월 31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7년 1월 31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부족한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사) 한국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2006.01.01~12.31)

〈 수입 〉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보조금	522,561,700	통일부, 코이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금	1,273,840,769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 수입	189,362,652	돼지저금통 포함
이자수입	67,114,531	
기타수입	2,256,073	강사료 외
계	2,055,135,725	

〈 지출 〉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북한사업비	1,131,195,423	비료 및 수재민 생활용품지원
인도사업비	230,151,583	기숙사건축, 학교운영비, 병원운영비 외
기타해외사업비	185,078,766	인도네시아지진, 쓰리랑카, 필리핀 외
국내사업비	75,385,750	애광원 지원 및 두북노인잔치, 두북시설지원외
관리운영비	100,934,825	소식지, 모금준비비 외
계	1,722,746,347	
이월잔액	332,389,378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 광주

윤유중 6,700 장선희 5,400

● 대구

김감용 26,700 김남수 11,920 김동수 26,910 김동현 30,320 김영애 62,200 김정복 20,000 김중희 11,450 김희준 30,070 대구상원고1년 121,250 대구상원고2년 352,440 대구정토야간보살님 20,650 대서중1-10 12,430 대서중1-12 14,980 대서중1-4 8,780 대서중1-5 13,950 대서중1-7 14,160 대흥산업 16,800 도미라 32,850 명심각 117,200 상주여성3-4 15,000 손창원 37,050 신순남 24,630 **오성중학교 82개 527,090** 윤채희 148,400 이상복 54,200 이상욱 10,600 이성임 23,600 이수민 7,340 이영주 26,880 이은빈 6,670 이정영 26,080 이중형 19,600 이철수 17,090 이형철 28,150 정경록 40,000 정분년 36,430 조옥분 24,480 조현구 52,890 청도용화사 186,010 최미숙 35,000 최미숙36,710 최선수 18,900 최정희 22,040 커피숍 5,750 크리스토퍼19기모임 146,800 **평리중 67개 446,010** (권보현 2,380 권태은 7,890 김다혜 960 김동현 7,350 김문정 3,500 김민규 3,550 김성실 5,320 김영주 3,000 김은영 1,500 김재문 13,750 김재운 8,310 김주식4,810 김초희 13,320 김태완 9,010 김현수 1,560 김희득 9,320 남종현 9,200 노의진6,030 무명 4,680 박규열 3,300 박명숙 12,730 박미정 3,980 박성우 3,150 박준형 7,150 박진영 1,860 박희준 6,100 배다정 4,240 배소영 4,200 서현진 2,510 성보경 3,080 손동현 2,370 신영재 5,980 신하늘 10,190 오소희 2,640 우병욱 7,800 우주리 10,400 윤동현1,920 윤수현 6,010 윤정민 2,820 윤한별 6,120 이미래 6,620 이성훈 13,150 이승운11,540 이영화 5,590 이유진 470 이윤호 7,090 이은정 5,330 이정화 1,670 이지선 7,770 이한별 4,770 이혜민 7,640 전현진 960 정다원 5,700 정인주 10,450 조미란 1,200 조아애 3,450 진금비 5,500 최태홍 29,230 최희정 2,560 **평리중1년 19,650 평리중2년48,870 평리중3-8 2,810 한재광 1,250 홍민호 8,750 홍소기 5,800 황수진 4,200** 학남중2-2 22,460 학남중수진 22,940 학남중은지 11,480

● 대전

강경우 15,000 강경일 15,000 강경희 15,000 강상규 15,000 강숙량 15,000 김순영 19,730 김남식 22,540 김동영 13,500 김명화 23,450 김미혜 50,000 김민영 15,000 김보영 30,000 김성숙 3,550 김수형 30,000 김순돌 55,750 김연화 8,480 김정환 21,360 김종덕 15,950 김현수 21,960 김호상 52,880 김희정 16,950 나정문 20,000 나정원 20,000 동춘한의원 16,440 류근희 30,790 무명 49,950 무명 22,910 무명 20,760 무명 25,660 무명 23,210 무명 15,500 무명 25,210 무명 4,230 무명 1,960 무명 18,080 무명 4,250 무명 2,470 무명 21,700 무명 660 무명 26,000 무명 4,780 무명 29,770 박경서 10,000 방연숙 52,110 배은정 15,000 변우식 50,000 변지민 50,000 성하순 10,000 신선미 8,160 신시유기능가게 69,600 신혜수 10,000 여예담 19,790 여하람 24,830 오인해 25,000 유근순 10,000 유태선 18,910 윤영미 40,000 윤영희 15,000 이옥자 10,000 이윤미 10,000 이윤선 25,000 이정미음식 13,270 이정자 20,000 이혜영 20,000 인수환 의원18,490 전민주 15,000 전석진 15,000 전외자 10,000 전외자 22,260 전원영 15,000 전인숙 9,540 정진숙 22,530 정춘자 15,000 조정민 20,500 조현민 21,300 중원초등학교4개 78,090 최녕연 15,000 최장희 41,030 최재왕 20,000 최진실 15,000 편용범 15,000 편준서 15,000 한대희 20,000 한형인 22,820 홍민성 21,700

● 동래

강규리 3,270 강숙자 23,610 강순옥 37,490 강신례 9,450 구현우 9,040 권영나 3,960 김경미 26,860 김경옥 21,600 김귀영 15,580 김금화 17,220 김남세 20,460 김동균 19,900 김민우 21,310 김병기 10,980 김봉준 4,710 김상옥,동상초등학교 3,100 김소라 23,850 김수진 10,270 김아름 15,440 김영자 28,650 김평환 16,900 김현섭 10,000 김현정 4,060 김형원 20,000 김홍예 31,670 남산중학생 19,420 남산중학생 25,160 남산중학생1-7 4,890 남산중학생1-7 14,610 남산중학교2-1 28,930 동래고2-5 19,800 동상초등 1-1 6,870 동상초등1-2 10,600 동상초등5-2 1,850 류현석 4,440 무명 11,810 무명 3,260 무명 14,880 무명 19,900 박길순 11,720 박미란 6,740 박수자 14,050 박순희 4,040 박시현 24,700 박인영 7,640 박준영 20,070 박진우 25,000 박진현 14,910 박진현 14,920 박치욱 20,460 백정자 20,190 백현옥 4,260 법문주 165,790 법문주 151,690 서창규 19,280 서화규 32,540 성예림 2,470 손예원 30,820 송부순 21,490 송유림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21,600 심수용 18,500 심재환 11,570 심채은 10,130 심채현 29,500 양준수 20,950 양현철 10,550 오유진 7,730 유상한 26,610 윤명옥 19,030 이경녀 5,820 이경연 3,830 이민주 8,440 이상국 3,910 이선표 8,750 이승익 6,590 이승희 12,690 이연숙 44,510 이영진 3,970 이민표 5,080 이종철 33,540 이춘곤 6,530 이현정 2,280 이홍준 16,920 이희자 18,730 임기선 16,800 임호 18,910 전유산 10,130 전유수 11,200 전지용 16,480 정경범 24,140 정두백 13,280 정성복 35,000 정세희 23,020 정현택 55,580 정희정 3,700 조수민 21,000 조윤희 5,270 조윤희 29,830 주은미 14,130 천정숙 15,370 최금자 9,340 최바다, 최하늘 13,240 최상철 20,000 최성봉 8,660 최춘옥 43,570 최해란 29,760 최형민 5,600 하복초등 990 하복초등 2,930 하복초등 1,640 하복초등 2,030 하복초등 5,300 하복초등3-3 63,700 허혜원 18,950 홍동욱 3,900

● 마산

강래성 20,660 강문영 33,110 강윤규 30,000 김숙임 30,000 김영석 23,870 김종혜 12,860 김종혜 23,910 김해숙 19,510 남정희 30,000 농협33번이화순 515,130 무명 1,610 송민석 23,890 신영숙 8,860 신영숙 13,050 안골포초등학교 131,860 유애경 26,850 윤병원 30,000 이경숙 21,000 이순자 12,080 이재민 8,360 이지원 22,480 이한길 21,700 진석현 82,880 진선미 11,840 청운사 8,650 하나꽃집 2,250 행복교육센터 10,000

● 서울

강세원 15,680 강유신 63,830 강유신 22,350 강정희 23,240 고경범 6,090 공순분 30,000 광동중직장협회 92,000 구상은 65,400 구윤희 59,000 권상복 15,000 권수영 12,000 권유선 25,000 권유선 50,000 권중백 15,300 권태영 20,000 권혁자 20,000 권혜숙 14,300 길태영 540 김경자 5,000 김기보 29,140 김기보 46,120 김동현 37,640 김동현 16,520 김명수 25,570 김모비 5,000 김무로 60,000 김미경 38,080 김민정 17,000 김순기 7,400 김순희 40,000 김애경 13,100 김연진 23,540 김영득 50,000 김영미 15,600 김영실 30,000 김오기 27,230 김옥성 50,000 김옥정 25,300 김용민 20,000 김유빈 25,000 김유진 9,580 김은진 6,500 김응수 30,000 김창기 34,240 김청기 30,000 김청대 20,000 김경수 10,000 김정택 30,000 김정택 32,320 김정현 3,300 김정희 29,970 김중숙 20,000 김지우 25,000 김진희 15,970 김창람 19,360 김춘렬 10,000 김태권 125,500 김태선 20,000 김현수 10,000 김현우 25,000 김현정 14,220 김현진 14,330 김혜영 38,230 김호순 10,350 김효식 5,300 남궁영임, 영순 19,960 남금주 18,830 남금주 15,880 남금주 22,000 남기정 10,000 노강민 10,000 노광철 112,270 능인고(김태욱) 300,000 **동그라미뮤지엄 84명 441,120** (가연 9,400 권미경 9,500 권의현 11,930 김경은 2,420 김광현 2,080 김서빈 11,640 김서영 2,650 김연규 10,880 김연철 2,300 김용신 2,400 김유미 4,010 김윤서 14,310 김은별 1,300 김은주 4,500 김은태 1,350 김이승현 24,790 김장현 2,500 김진건 6,750 김태주 4,680 김태현 10,670 김현아 5,540 남상현 1,260 무명 6,240 박경도 3,420 박세영 2,010 박세정 5,490 박세형 840 박영태 5,420 박원빈 1,180 박인현 19,450 박재민 4,290 박주영 6,490 박효진 2,090 백호윤 6,640 서영빈 12,250 서유나 6,070 서유림 3,520 서창우 6,760 신예인 2,650 신혜수 6,130 심민석 1,430 안상울 730 양정현 8,190 오병주 3,250 왕정현 3,280 위진우 4,480 위혜인 17,810 유준석 4,210 윤다는 3,870 윤현수 730 윤효정 1,810 이강륜 10,410 이대민 4,650 이돈희 5,500 이민희 3,270 이산하 3,040 이소정 2,430 이정빈 4,300 이주연 4,440 이진경 3,650 임채진 6,900 임희선 3,880 장민영 1,730 장우성 4,440 장유나 5,820 장유은 6,660 전예은 5,030 전지원 6,340 전해진 3,150 정가빈 6,170 정가영 3,310 정광희 1,280 정미정 1,320 정하린 6,430 정현우 1,280 제정민 2,510 조아란 4,310 조연희 6,270 최민정 6,250 최유진 4,030 최은정 2,620 최재식 3,130 홍준영 6,370 홍태영 2,610 동대부여교 238,400 라원주 57,340 맹진희 13,600 무명 21,310 무명 17,290 무명 6,500 무명 9,330 무명 5,580 무명 17,970 무명 16,920 무명 34,740 무명 15,080 무명 19,230 무명 16,030 무명 16,320 무명 20,170 무명 43,980 무명 22,630 무명 9,570 무명 32,420 무명 24,320 문승경 10,000 문익기 25,720 문종인 9,870 미니스타 5,130 민병덕 36,280 민승기 8,580 민익식 50,000 민희정 193,780 박광현 10,000 박덕은 24,820 박덕환 100,000 박미옥 26,000 박서정 24,470 박수현 15,000 박순구 31,450 박용숙 24,510 박윤서 25,240 박윤하 38,000 박은미 5,000 박재민 9,340 박정희 127,150 박주선 18,000 박창진 19,980 박현수 10,000 배다현 15,890 배명숙 19,500 배해자 35,250 백승엽, 승현 11,000 백우현 13,000 법웅사 30,910 선현재 25,000 손옥순 35,000 손지은 10,000 송경자 25,500 송예린 20,000 신동호 10,880 신명순 60,000 신선영 17,350 신순영 26,000 신연화 7,000 신정재 20,500 신채연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25,000 안선영 18,900 양명숙 16,260 양윤순 15,000 어승미 10,000 엄기대 8,310 오다진 17,050 오성제 17,920 오해주 12,220 오해주 14,670 **온곡초등학교4-6반 17개 197,940**(4-6반 전체 17,660 김민혁 12,150 김소희 11,820 김지수 7,280 김필 14,010 나윤영 13,930 박한솔 38,770 이은진 9,820 이재승 15,530 이진규 2,000 이혜림 14,500 장희은 7,610 정미송 6,930 조승연 1,780 최동현 10,190 최진 3,650 한송이 10,310) 용인구갈초 12,630 우기원 12,450 우대균 20,000 우정원 11,810 우중학 12,800 우진구 17,100 우현정 20,850 유광렬 40,000 유남욱 40,000 유용걸 17,670 유용희 18,680 유제서 21,480 유코 15,010 유코 13,490 유코 21,870 윤영재 33,710 윤영화 100,000 윤원 20,000 윤효남 9,760 윤희연 26,740 이규제 11,400 이극희 26,650 이기갑 42,000 이남규 30,500 이덕기 20,460 이동기,고정희,이보리 25,010이명자 20,520 이명희 41,510 이미자 18,000 이민우 10,000 이병일 30,000 이선용 25,000 이선주 40,800 이성원 15,600 이승화 89,610 이영순 14,000 이영숙 18,980 이용호 31,600 이은숙 100,000 이은정 15,000 이정숙 30,000 이재호 35,520 이종애 60,690 이지용 25,000 이주옥 33,450 이현미 24,490 이해욱 26,750 이효진 80,000 이희진 11,330 일복이품50,000 임성수 50,000 임숙이 15,000 임예현 5,000 임옥미 20,000 임혜원 23,490 장미진 12,500 장소영 27,460 장은미 30,000 장혜진 17,500 정덕모 40,000 정성윤 10,000 정세빈 10,000 정세영 15,000 정영미 31,750 정현수 13,000 정현수 35,430 정현수 42,100 정현수 26,040 정현수 22,890 정현수 20,500 조성숙 31,050 조영진 15,000 조영훈 15,000 조정숙 25,950 (주)모빌리언스 72,000 진명숙 7,390 진성일 27,610 진실성,이선자 27,580 차호영 32,960 최경숙 23,000 최금미 11,090 최기하 9,450최은정 10,000 최인규 6,350 최인우 15,500 최재길 23,300 최정현 5,630 최종미 14,020최령식 49,965 최현미 30,840 최현순 10,000 포토에셋서울지점 이세진의 19명 111,890 하나원89기 142,930 하나원91기 351,050 하나원91기20\$ 18,360 한선호 59,860 한승민50,000 한승호 50,000 한연주 50,000 한치선 50,000 한태영 50,000 호상숙 30,000 황명훈 20,000 황숙현 32,880 황승오 20,000 황지훈 20,000 LG25시 26,060

● 울산

김지성회계사무소 46,280 대용약국 57,880 돔배돈가삼산점 10,790 무명 25,930 무명 29,690 안수용 28,710 정인권내과 5,860

● 정읍

박주해 22,690 박천룡 18,760

● 청주

이종준 91,600 최윤주 32,280

● 해운대

강대업 19,680 강춘옥 65,500 강춘옥 21,550 관도행 8,120 김민수 6,690 김정희 20,370김차두 20,830 김혜원 14,940 무명 19,700 무명 15,880 무명 20,890 무명 128,300 무명 8,820 무명 24,450 무명 25,090 백흥미 42,380 송경주 14,080 오남순 14,920 옥유덕 63,300 이경훈 28,900 이진욱 19,060 이해수 21,320 장경숙 11,660 정수옥 39,500 정숙 15,490 정연이 23,500 정은미 29,460 한희수 51,360 허정원 16,860 환경공단이태식 4,630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단위:원)

경주 480,000 대구 8,356,870 대전 2,652,260 동래 3,414,470
 마산 5,760,810 서울 5,856,840 울산 1,028,670 체천 107,390
 청주 568,240 해운대 2,065,530 LA 1,183,741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인도후원회원

P0018090 이 정 숙	P0021651 박 상 훈	P0021712 최 유 정	P0021980 한 승 협
P0020993 김 정 숙	P0021652 신 형 범	P0016649 허 종 보	P0022014 진 영 자
P0017539 최 동 희	P0021650 최 향 숙	P0017847 황 영 레	P0018610 최 미 숙
P0021322 서 수 영	P0021600 범 연	P0021662 이 경 수	P0010041 최 도 연
P0021329 윤 순 희	P0019036 신 현 국	P0021659 장 정 숙	P0021861 박 미 희
P0020920 백 승 희	P0021736 이 현 옥	P0021661 장 해 영	P0022047 서 대 우
P0011167 김 세 리	P0021567 안 정 숙	P0021660 정 우 영	P0021974 이 남 희
P0021291 김 윤 희	P0021726 한 경 아	P0011861 김 현	P0022062 우 안 녕
P0021292 홍 영 주	P0021570 한 동 이	P0021746 김 미 란	P0022055 이 소 연
P0007772 안 혜 실	P0021551 나 병 철	P0005966 서 정 순	P0020556 조 한 시
P0021725 장 대 윤	P0017178 오 지 현	P0021711 신 화 숙	P0005392 박 동 규
P0021613 장 승 근	P0021550 와이즈만(구회법)	P0021737 박 연 라	P0022182 김 등 미 강
P0021654 강 위 희	P0021810 송 민 화	S0018048 포항교사불자회	P0005900 박 용 애
P0021623 유 은 주	P0021587 김 미 정	P0021809 혜 은	P0010131 전 경 숙
P0021461 임 해 수	P0021580 문 선 용	P0021805 오 정 수	P0007393 전 양 순
P0015157 장 인 신	P0021578 문 재 용	P0021735 서 강 아	P0006425 최 상 철
P0021731 손 현 정	P0021584 문 희 만	P0021812 박 경 진	P0022210 정 찬 업
P0021732 이 동 기	P0002268 백 승 우	P0021807 이 용 석	P0022209 주 석 훈
P0021648 김 양 경	P0021708 박 상 준	P0007937 이 소 윤	P0017313 송 영 희
P0021655 이 막 순	P0021703 박 종 숙	P0021815 이 애 희	P0008025 강 신 재
P0016734 홍 미 미	P0021702 차 상 인	P0002749 정 영 부	
P0006460 김 향	P0021618 김 관 호	P0021816 윤 인 순	
P0021714 문 용 포	P0021710 김 미 정	P0013896 김 진 희	
P0021425 문 태 운	P0021620 김 소 연	P0016920 석 은 미	P0017424 고 미 숙
P0012552 이 성 혜	P0021657 김 소 연	P0018303 오 흥 자	P0021165 정 경 희
P0003440 정 인 복	P0021621 김 영 룩	P0021833 이 승 희	P0020901 김 일 남
P0021573 김 동 훈	P0021722 김 종 룰	P0016050 임 성 구	P0020918 박 정 희
P0011601 김 형 미	P0021715 김 태 정	P0021831 나 원 정	P0021089 강 창 혁
P0021572 이 명 근	P0021619 김 혜 진	P0022041 백 중 현	P0021292 홍 주 영
P0021232 김 광 순	P0021802 모 중 득	P0021867 신 병 무	P0021096 김 혁
P0021729 김 선 희	P0021658 박 을 림	P0009723 허 인 지	P0021615 장 은 향
P0021575 김 연 우	P0021705 박 은 주	P0012399 서 인 현	P0021206 김 은 주
P0021574 김 예 진	P0021701 양 성 혁	P0007463 주 광 희	P0018172 김 은 주
P0021734 주 상 아	P0021706 이 달 레	P0021950 문 진 석	P0021461 임 해 수
P0021653 김 동 출	P0021716 이 아 란	P0022186 추 승 희	P0021731 손 현 정
P0021625 김 미 경	P0021713 이 태 경	P0006167 권 인 택	P0017693 이 경 희
P0021649 김 중 길	P0021709 전 우 철	P0020776 김 동 훈	P0021732 이 동 기
	P0021617 정 은 주	P0006478 정 기 연	P0002290 이 상 진
	P0021717 조 채 희	P0022056 박 중 철	P0011637 정 귀 연

북한어린이결연

P0017424 고 미 숙
P0021165 정 경 희
P0020901 김 일 남
P0020918 박 정 희
P0021089 강 창 혁
P0021292 홍 주 영
P0021096 김 혁
P0021615 장 은 향
P0021206 김 은 주
P0018172 김 은 주
P0021461 임 해 수
P0021731 손 현 정
P0017693 이 경 희
P0021732 이 동 기
P0002290 이 상 진
P0011637 정 귀 연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P0021714 문 용 포	P0021830 임 현 옥	P0011858 지 옥	P0021467 최 유 리
P0021572 이 명 순	P0009723 허 인 무	P0021943 심 규 목	P0012995 유 근 세
P0021729 김 선 희	P0002551 정 다 운	P0015395 박 병 일	P0022181 신 호 철
P0010200 김 옥 희	P0021949 조 종 완	P0005622 손 경 희	P0019836 이 상 곤
P0017178 오 지 현	P0022063 박 윤 숙	P0021550 와이즈만(구회법)	P0017098 이 흥 선
P0021735 서 강 아	P0021950 문 진 석	P0021810 송 민 화	P0019830 황 병 덕
P0021598 윤 대 련	P0016811 김 대 회	P0021611 신 종 기	P0015427 광 진 선
P0001926 손 미 옥	P0022057 김 시 출	P0017316 장 청 하	
P0008613 박 진 현	P0022014 진 영 자	P0021610 조 주 래	
P0003244 박 희 숙	P0022037 박 경 일	P0021139 김 경 아	결핵퇴치후원
P0021728 한 자 원	P0018610 최 미 숙	P0005954 손 명 옥	P0021656 김 석 경
P0008630 심 필 보	P0022054 최 우 혁	P0014996 이 윤 희	P0007772 안 혜 실
P0021810 송 민 화	P0006396 박 경 준	P0016649 허 중 보	P0021612 김 미
P0021610 조 주 래	P0022006 이 성 수	S0021664 범용사정토회	P0021731 손 현 정
P0021577 이 경 립	P0022051 지 미 희	P0009248 장 선 일	P0021732 이 동 기
P0021744 임 옥 희	S0022036 레이저발코리아(주)	P0021750 오 진 숙	P0010200 김 옥 희
P0021799 김 현 자	P0020681 최 선 애	P0021805 오 정 수	P0013806 원 명
P0021801 송 선 주	P0022070 서 정	P0021767 양 동 결	P0021942 김 병 태
P0021803 이 영 선	P0008773 안 영 미	P0001967 양 수 지	P0021707 진 혜 경
P0012795 신 은 석	P0022062 우 안 녕	P0003683 최 경 순	P0021663 황 성 신
P0021746 김 미 란	P0011354 정 광 자	P0002799 김 석 순	P0016649 허 중 보
P0005966 서 정 순	P0005542 박 명 주	P0002698 권 상 레	P0021805 오 정 수
P0021496 박 세 원	P0021975 최 환 석	P0003581 김 정 자	P0019891 김 영 운
P0022175 서 순 레	P0006425 최 상 철	P0017449 고 재 우	P0021815 이 애 희
P0015936 이 정 혜	P0017313 송 영 희	S0022190 한마음선원	P0002749 정 영 부
P0021805 오 정 수	P0016580 김 미 란	중 부 경 남 지	P0021832 김 성 남
P0006610 박 양 진		원	P0014338 이 정 호
P0021804 김 현 주	북한개발후원	P0021012 김 명 주	P0018610 최 미 숙
P0021811 김 종 미		P0013712 정 정 관	P0017017 정 미 영
P0021808 이 용 덕	P0015934 김 치 훈	P0003312 김 중 복	P0020227 손 예 원
P0021058 이 원 환	P0021731 손 현 정	P0004626 박 범 숙	
P0004098 이 혜 정	P0021732 이 동 기	P0001981 유 인 자	
P0021741 도 재 숙	P0006363 배 상 희	P0008073 권 영 숙	
P0021832 김 성 남	P0021946 정 성 규	S0022191 경남한살림	아프간후원
P0021814 손 동 렬	P0008250 정 윤 석	생 명 학 교 위 원 회	P0017571 한 은 경
P0021833 이 승 희	P0003556 권 혁 중	P0003228 김 영 숙	
P0022041 백 중 현	P0016776 서 동 찬	P0008939 홍 성 훈	
		P0018610 최 미 숙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특별후원금 명단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특별후원금

40차 일상에서 깨어있기	74,000원
41차 일상에서 깨어있기	44,500원
고현진	200,000원
곽봉준	5,290,000원
구만석	200,000원
권인택	1,000,000원
김문희	10,000원
김병태 결핵퇴치	150,000원
김봉주	1,000,000원
김석용	600,000원
김성남 결핵퇴치	30,000원
김성남	30,000원
김영주 인도수자타아카데미지원	50,000원
김응	100,000원
김지효	1,000,000원
김진숙	10,000원
김진희 인도우물파기지원	100,000원
김현주 아프간후원	50,000원
김홍정	100,000원
김희라	2,000,000원
노재국	500,000원
동대부여고2학년 7반	238,400원
류흥기	100,000원
무기명 인도모자보건	10,000,000원
박경진	200,000원
박근숙 선홍열지원금	100,000원
박동규	50,000원

박명주	100,000원
박상준 한반도수재구호금	100,000원
배인환	400,000원
백승우	300,000원
법옹사어린이회	108,000원
류현철, 류규희	50,000원
서강아	330,000원
서동찬	50,000원
서석곤	2,000,000원
서정룡	1,000,000원
서정순	300,000원
서지현	1,000,000원
석은미	50,000원
설상수	300,000원
손예린 결핵퇴치	150,000원
송영희	30,000원
신중기	400,000원
신현국 인도의약품	30,000원
심을택	80,000원
심의봉영가	30,000원
안선환	50,000원
안영미	100,000원
양영계영가친도	1,000,000원
오인숙	400,000원
오정수	200,000원
와이즈만(구희범)	150,000원
원치황	1,000,000원
유재환 인도의약품	100,000원
이도중 아프간후원	100,000원
이수향영가	500,000원
이재형, 김경하	100,000원
이정호 결핵퇴치	150,000원
이항영	480,000원

이현옥	1,000,000원
이혜정	100,000원
이희권님 생일기념	30,000원
임건우 인도모자보건	1,000,000원
장선일	500,000원
정광자	200,000원
정중화	500,000원
정찬업	100,000원
주석훈	100,000원
최광규	100,000원
최상철	1,000,000원
최선희	30,000원
최윤석, 박혜선 결혼기념 -인도수자타아카데미지원	1,000,000원
최이섭	600,000원
최환석	500,000원
추승희	50,000원
학익여고	173,000원
홍성훈	100,000원

인도성지순례특별후원금

관음사	\$100
구영희	\$100
김금자	\$200
김궁수	\$100
김등미강	150,000원
김숙현	\$200
김지원	\$100
류춘선	80,000원
문진숙	\$100

특별후원금 명단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박구식	\$200
박길림	\$100
박미영	\$100
박용애	300,000원,\$100
배태운	\$100
법희스님	\$1,000
손정애	\$100
손정애	\$100
신강희	\$200
신동화	\$101
심성혜	\$100
오정희	\$100
오현경	\$100
원택	\$500
이병례	\$100
일현스님	\$500
임계숙	\$100
장금옥	\$100
장선옥	200,000원
전경숙	130,000원
전양순	100,000원
전행열	300,000원
정관호	\$200
정순덕, 강덕연	\$100
정희숙	\$200
주영순	\$100
최진연	\$100
한상화	\$100

해외특별기부금-독일

두이스부르크 이은희	60유로
뮌헨 김예희 인도어린이돕기	300유로

북한어린이 돕기	500유로
두이스부르크 이영숙 북한돕기	
보시금	120유로
프랑크푸르트 박정숙 저금통후원	308,32유로

해외특별기부금-미국

2006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뉴욕

Choi, Kyungsuk	\$350
Kim GwivDeok	\$260,
Cha Du Dae(Two Cars) Lee jung In, Kim Sukhyun and other 4 people gethered	\$215
Park, Kyungbae	\$135
뉴욕 불교대학생, Lee Jung In, Mi Rim, Choi, Myongsuk	\$100
Pamela Maponga	\$400
Han, Young Sil	\$110
Lee, Myongsook(Subosal)	\$20
Kim Yoo Ri	\$50
Jun, Jungsook	\$200
Oh, Ok Soo	\$20
Angi	\$20
Yoon, Sarah	\$40
Ms. 3rd Avenue	\$50
Pat Leveque	\$100
Choi, Mansung	\$200
Choe, Suyoung and Lee Jaeyong	\$70
Kim, Taek Soo(Philla)	\$1,200

Douglas Chermak(Oakland California)	\$20
John Dziak, Mary Dziak	
	\$15.00
Ms. Myong Sook Choi,	
	\$2,000
Young Ja Choi,	\$600
Kim, Byung Yong	\$500

• 콜럼버스

Kim, Joon Ja	\$500
Ha, Il Sook	\$200
Kim, Hyo Sun	\$50
Jungtohoi in Columbus, Ohio	\$75

• 미국 워싱턴

Lee, Hee Ja	\$24
Son's Quailty Food Co.	\$200
Oh, Seul Ki and Oh, Kirim	\$20
Lee, Jin H. and Lee, Jane	\$160
Choi, Young Tae and Kim Sung Soon	\$80
거리모금	\$323

북한 내복 보내기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강성관	10,000원	김현숙	20,000원	변병규	10,000원
강성진	20,000원	김현숙	30,000원	변상순	20,000원
경남한살림 생명학교위원회	100,000원	김현숙	40,000원	변순옥	10,000원
고미숙	20,000원	김현지	10,000원	변인환	100,000원
고춘복	10,000원	김현철	30,000원	성길재	3,000원
곽진선	5,000원	김형준치과	100,000원	성호기	20,000원
구만석	30,000원	김형호	5,000원	손경희	20,000원
권상래	20,000원	노용대	5,000원	손명옥	10,000원
권시현(김순란)	500,000원	대구한의대학	500,000원	손미옥	30,000원
권혁중	20,000원	도미라	110,000원	손태숙	10,000원
김가람	5000원	류소정	12,000원	송영화	80,000원
김산	3000원	류영준	20,000원	신옥희	30,000원
김경아	5,000원	무주상	10,000원	신일호	10,000원
김기일	50,000원	무주상	50,000원	신호철	250,000원
김길웅	30,000원	무주상	9,000원	심규목	100,000원
김남수	100,000원	문상록	5,000원	공동육아협동조합씩씩한어린이집	
김대성	5,000원	문호정	10,000원	아빠일동	100,000원
김명주	100,000원	문효정	10,000원	안동환	50,000원
김묘년	30,000원	박광현	3,000원	양계화	5,000,000원
김민수	3,000원	박근숙	100,000원	양동걸	100,000원
김병덕	10,000원	박민아	5,000원	양수지	50,000원
김병덕, 김용길	10,000원	박범숙	50,000원	양승희	100,000원
김석범	100,000원	박병일	300,000원	염진선	5,000원
김석순	5,000원	박상호	5,000원	오기진	50,000원
김성삼	10,000원	박순형	25000원	와이즈만(구회법)	150,000원
김승대	20,000원	박언석	3,000원	유근세	50,000원
김연진	100,000원	박영기	300,000원	유인자	50,000원
김영미	10,000원	박영득	10,000원	유재연	50,000원
김영숙	5,000원	박윤규	100,000원	유재한	150,000원
김영숙	110,000원	박윤희	1,500,000원	윤대원	5,000원
김일운	100,000원	박재술	10,000원	윤용철	50,000원
김정오	10,000원	박재옥	35,000원	이경은	10,000원
김종문	10,000원	박준영	5,000원	이경학	500,000원
김종복	50,000원	박혜정	5,000원	이민호	10,000원
김종웅	10,000원	배남주	20,000원	이봉오	400,000원
김진수	10,000원	배상희	5,000원	이상곤	200,000원
		배혜정	10,000원	이석정	50,000원

북학 내복 보내기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이석호	50,000원	장청하	50,000원	최경순	40,000원
이성수	10,000원	전병채	5,000원	최미숙	10,000원
이성재	5,000원	전병찬	1,430,000원	최복자	50,000원
이영주	20,000원	전병태	10,000원	최수희	10,000원
이영주	20,000원	전병화	10,000원	최순영	3,000원
이오예	500,000원	전보경	3,000원	최유리	150,000원
이윤희	30,000원	전봉철	10,000원	최정희	5,000원
이재임영가	500,000원	전효진	10,000원	최진연	50,000원
이정영	1,010,000원	정선화	5,000원	한마음선원중부경남지원	
이정희	30,000원	정성규(성십의원)	50,000원		100,000원
이정희	20,000원	정영록	30,000원	한성희	30,000원
이태화	20,000원	정영부	20,000원	한승협	40,000원
이한우	10,000원	정영수	20,000원	허정원	20,000원
이한우(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단)		정영옥	10,000원	현영실	50,000원
	1,010,000원	정원배	50,000원	홍사철	30,000원
이홍선	160,000원	정윤석	125,000원	황경애	30,000원
이훈만	10,000원	조봉수	10,000원	황병덕	50,000원
임경옥	100,000원	조용운	10,000원	황철현	10,000원
임금미	1,000,000원	중앙사무처	30,000원	황춘복	10,000원
임호	30,000원	지옥	400,000원		
장선일	50,000원	천예원	1,317,770원		

| 물품후원 |

2006년 10월26일부터 2006년 12월 25일까지



1. (주)다다노트 노트 120권 * 160박스 * 260 원 * 2(두차례) 총 9,984,000원 상당
2. 울산 필 치과의원 가방 400개, 지갑 500개 총 1,950만원 상당
3. 환희사 남자런닝 68개, 여자런닝 30개 등 생필품 1박스
4. 이일화 손목시계 2개, 지갑, 문구류, 사무용품 등 1박스
5. 무주상 양말 7컬레, 샵프1개, 린스 1개, 비누, 치약
6. 무주상 종합장 30권, 공책 17권, 풀 12개 색연필 7세트와 같은 문구류
7. 이순희 엔피 알콕시글리세롤 16개 * 85,000 총 1,360,000원 상당
8. 동학사 세수비누 23개, 빗 23개 등 생필품 1박스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 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 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07-01-15 (주)모빌리언스 국민	07-01-15 김 점 순 농 협	07-01-08 백 경 희 농 협
07-01-15 (주)모빌리언스 국민	07-01-24 김 정 량 국 민	07-01-22 변 성 운 농 협
07-01-15 (주)모빌리언스 국민	07-01-30 김 종 숙 국 민	07-01-11 색 즉 시 공 제 일
07-01-15 강 명 순 국 민	07-01-29 김 태 님 농 협	07-01-20 성 불 하 세 요 국 민
06-12-05 강 미 경 제 일	07-01-09 김 혜 경 국 민	07-01-02 송 경 애 농 협
07-01-26 강 성 욱 하 나	07-01-29 김 흥 규 국 민	07-01-10 송 민 철 국 민
07-01-25 강 세 환 신 한	07-01-10 노 미 선 국 민	07-01-16 송 진 숙 농 협
07-01-12 강 해 수 농 협	07-01-10 노 재 성 농 협	06-12-30 수 고 하 세 요 우 체 국
07-01-02 광 형 길 농 협	07-01-02 능 인 고(김태욱)국민	07-01-22 신 동 호 국 민
07-01-22 권 대 현 외 환	07-01-02 능 인 고(김태욱)국민	07-01-18 신 순 영 국 민
07-01-29 권 연 수 국 민	06-12-08 단 순 후 율 국 민	07-01-09 신 연 화 농 협
07-01-23 권 영 암 농 협	06-12-04 대 각 정 사 국 민	06-12-04 신 영 희 국 민
07-01-02 김 갑 순 농 협	06-12-04 대 각 정 사 국 민	07-01-02 신 용 현 농 협
07-01-24 김 경 란 국 민	07-01-26 대구한의대학 농협	07-01-30 신 현 정 신 한
07-01-05 김 기 환 농 협	06-12-07 마 현 미 국 민	07-01-17 심 정 섭 국 민
06-12-01 김 도 영 외 환	07-01-25 문 회 경 농 협	07-01-16 여 현 부 처 남 감 사 합 니 다 국 민
07-01-02 김 도 현 외 환	06-12-04 민 평 협 하 나	07-01-22 연 미 경 우 체 국
07-01-04 김 말 여 우 체 국	06-12-04 민 평 협 국 민	06-12-21 은 곡 초 교 46 국 민
07-01-29 김 미 경 국 민	06-12-04 민 평 협 우 리	07-01-22 유 상 혁 국 민
07-01-29 김 민 정 국 민	06-12-04 민 평 협 제 일	07-01-25 유 희 연 신 한
07-01-31 김 보 경 국 민	06-12-01 민 평 협 국 민	06-12-01 이 경 선 농 협
07-01-18 김 선 미 농 협	06-12-01 민 평 협 신 한	07-01-02 이 남 숙 국 민
06-12-11 김 선 욱 농 협	06-12-04 민 평 협 외 환	07-01-29 이 만 덕 하 나
07-01-31 김 세 준 우 리	07-01-09 박 기 석 신 한	07-01-31 이 성 숙 국 민
06-12-07 김 수 정 국 민	06-12-20 박 낙 범 우 체 국	07-01-22 이 성 욱 농 협
06-12-15 김 애 숙 국 민	07-01-02 박 상 아 농 협	06-12-01 이 송 화 국 민
07-01-24 김 애 식 국 민	06-12-05 박 선 영 국 민	06-12-15 이 승 화 농 협
07-01-05 김 영 희 국 민	07-01-16 박 순 경 우 체 국	06-12-07 이 연 숙 우 체 국
07-01-31 김 욱 성 국 민	06-12-28 박 순 구 국 민	06-12-01 이 진 아 국 민
06-12-01 김 인 필 국 민	07-01-26 배 재 석 외 환	07-01-02 이 태 희 국 민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07-01-30 이현미 우체국	07-01-15 정현아 우체국	07-01-22 최정련 신한
07-01-11 이화순 농협	07-01-18 정혜란 국민	06-12-04 최지영 국민
07-01-02 이효정 신한	06-12-01 정혜란 국민	07-01-31 최태연 국민
07-01-31 임성수 국민	07-01-03 제3세계 신한	07-01-02 최한운 국민
07-01-05 임소영 신한	07-01-09 조귀자 농협	07-01-04 하효남 우리
07-01-10 임소현 농협	07-01-15 조명순 우체국	07-01-19 한만석 농협
07-01-30 임창숙 농협	06-12-27 조미정 국민	07-01-24 한명기 국민
07-01-11 장병대 농협	07-01-29 조석율 신한	06-12-28 한장우 국민
06-12-18 장설 국민	07-01-10 조준화 우체국	07-01-22 허태운 제일
07-01-30 장진숙 신한	07-01-08 조현정 신한	07-01-26 홍언년 국민
07-01-08 전우정 국민	06-12-30 조희부외2명 농협	07-01-02 홍영길 농협
06-12-08 전주최은주 신한	06-12-26 주용운 기업	07-01-08 HOWA 국민
07-01-25 정비용 농협	07-01-02 최경숙 신한	06-12-06 HOWARD 외환
07-01-03 정은선 농협	07-01-30 최동언 우체국	
06-12-21 정준형 국민	07-01-10 최명임 신한	
06-12-08 정지원 국민	07-01-03 최성숙 신한	

● 명단 확인 바랍니다.

개인명의(예금주 : 최석호)로된 JTS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명단에 계신 분들은 소식지 뒷면에 있는 구좌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 국민 086-21-0466-356
고민재(보광빌딩), 봉금례, 김영자, 유상열
- 농협 044-02-072021
석미경, 변은아, 장일우, 김상호, 유상완, 김찬옥, 김수현
- 우리 430-07-075428
최금숙, 최용재
- 농협 100080-51-033509
김동숙, 한혜숙
- 외환 093-19-24002-8
진영희
- 조흥 348-04-303273
전정란
- 우체국
김재홍, 김누리

2007년 2월 14일

(사)좋은벗들에서 법륜스님DMZ평화상

수상금 500만원 전액을

북한성홍열치료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260-05-011808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